쉽고 재미있게…수궁가의 재해석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30주년

전통창극 '수궁가' 공연

27·28일 광주문예회관

"한 곳을 바라보니 묘한 짐승이 앉아있네.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꽁댕이 묘똑!"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수궁가'가 광주시립창극단의 전통창극 '수궁가'로 재탄생된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제52회 정기공연으로 전통창극 '수궁가'를 공연한다. 27일 오후 7시30분, 28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30주년, 대한민국 창극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판소리 '수궁가'를 시립창극단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올리는 창극이다.

'수궁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유일하게 우화(寓話)적인 작품을 바탕으로 재창조돼 해학적인 요소가 극대화됐다. 이와 함께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아 어린이 등 창극이 익숙지 않은 관객들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전래동화 '별주부전'으로도 알려져 있는 '수궁가'는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육지로 살아 나온다는 내용이다. 충(忠)이라는 교훈과 조선 후기 사회상을 빗댄 풍자와 재치 가득한 민중적 유쾌함이 가득하다.

판소리·창극·국악·무용·모듬북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감성과 함께 실제 용궁을 방불케 하는 연출과 효과·의상 등이 흥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제작진 또한 작품의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이탈리아 ARAM, ARENA 아카데미아 오페라 과정 디플로마를 받고 이탈리아에서 '나비부인', '라보엠', '토스카' 등을 연출한 오페라 전문 연출가 김어진이 맡았으며 작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가 전수조교 김수연이 담당했다. 이밖에 안무가 채향순, 작곡가 이용탁이 참여한다.

또 국악계를 대표하는 소리꾼들이 총 출동해 변화무쌍한 연기와 감동적인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영애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도창을 맡았으며 토끼 역에는 이은비·방수미가, 별주부 역에는 박무성·정민영이, 용왕 역에는 박운종 등이 등장한다.

김어진 연출가는 "전통 판소리는 고어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극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이번에 시립창극단이 선보일 '수궁가'는 창극 공연을 처음 보는 사람도, 어린이들도 극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말이 쉽고 대사가 재미있다"고 말했다.

또 "수궁가는 배경 자체가 바다 속이다 보니 용궁의 모습과 더불어 다양한 바닷속 물고기 등 볼거리가 넘쳐나 동화책 펼치듯 공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애 예술감독은 "내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다 정기공연 작품으로 '수궁가'를 올리기로 했다"며 "화려한 의상과 실제 용궁을 재현한 무대연출로 130분 동안 관객들이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예매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학생 전석 50% 할인). 문의 062-526-036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김선미 작가 '바람을 타고 무릉도원을 거닐면'전

30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 갤러리

많은 이들이 꿈꿨던 이상향 속을 거니는 여인이 눈길을 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유유자적 삶의 여유를 느끼는 모습이다.

김선미 작가 초대전 '바람을 타고 무릉도원(武陵桃源)을 거닐면'이 오는 30일까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처럼 누구나 꿈꾸는 낙원을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은지 질문을 던지는 작가는 이상향의 근원을 찾고, 그 이미지를 표현해 내고 있다.

김 작가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정선의 '금강전도', 김홍도의 '서원아집도', 장승업의 '고사인물도', 민화 '십장생도'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작업했다. 꿈처럼 잡히지 않는 이상향의 속성처럼 모래를 활용해 배경을 만든 후 다채로운 색감의 한복을 입은 여인을 배치했다.

조선대 서양학과를 거쳐 전남대 서양화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갤러리 도' 대표도 맡고 있다. 문의 062-530-5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릉도원'

'생성지점'…한국화가 윤세영 초대전

29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생성지점'

화폭 한 가운데 자리한 구멍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한없이 빨려들어가거나, 깊은 심연에서 솟아나거나. 어떤 구멍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건 빼곡이 들어찬 가시다. 혈관처럼 꿈틀거리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물고기 떼같기도 하다.

세상을 이루는 요소를 물, 공기, 흙, 불 네가지로 규정하고 그것을 전부 통과할 수 있는 요소를 '시간'으로 명명한 작가는 작품속 구멍을 에너지가 집약된 곳, '생명의 근원'으로 봤다.

한국화가 윤세영 작가 초대전이 오는 29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 작가가 이번에 선보이는 '생성지점'(Becoming space)' 시리즈는 고정된 에너지가 아닌, 흐르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에너지가 대지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을 준다. 곱게 간 돌가루를 발라 세월의 흔적을 표현한 후 그곳에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

윤 작가는 분채, 석채 등 한국화 소재로 다양한 실험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생명의 꿈틀거림을 과감하게 표현해 낸 올해 신작은 관람객들을 깊은 사색의 공간으로 데려간다.

전시장 중앙에 자리한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색채가 인상적인 여타의 그림과 달리 아교와 백반, 먹물을 활용해 일정 정도 의도한 번짐을 과감히 표현하고 탱자나무 가시와 겹겹이 붙인 장지를 활용해 순환하는 시간을 표현해 냈다.

윤 작가는 "행복한 시간이든 고통의 시간이든 시간이 통과하는 모든 것에는 한 지점이 생기고 구멍이 뚫린다"며 "생성과 소멸이 공존하는 그곳에 응측돼 꿈틀거리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윤 작가는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22회 광주미술상, 의재 허백련 레지던시 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상상의 경계들'을 주제로 열리는 2018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한다. 문의 062-223-66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기표 광주대 교수 아시아문화원 원장 임명

이기표〈사진〉 광주대 교수가 지난 13일 아시아문화원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

이 신임 원장은 1988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일보 기자, KBC광주방송 기자, 앵커, 제작·취재부장,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 게이오 대학 객원연구원, 히로시마 슈도대학 사회학과 강사, 광주대 기초교양학부 조교수로 강단에 섰다. 지난해 3월 당시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 활동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 신임 원장은 언론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제작 중심 문화예술전문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내실 있게 이끌어 갈 것"이라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와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을 받아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운용 등 업무를 맡는 법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로 누리자' 참여업체 모집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로 누리자!' 이벤트 프로그램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전용 복지카드로 연간 지원액은 1인 7만원이다.

이벤트 운영을 원하는 업체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홈페이지(ww.mnuri.kr)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062-670-791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